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20:5-7

- 1월 4일 (월)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창 16:8-13
- 1월 5일 (화)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창 22:1-14
- 1월 6일 (수)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체바오트” 삼상 21:5-9
- 1월 7일 (목) 이상훈 목사(미성대학교, MiCA Director)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삼마” 겔 48:35; 계 21:3-5
- 1월 8일 (금)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살롬” 빌 4:4-7
- 1월 11일 (월)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출 15:22-27
- 1월 12일 (화) 송병주 목사(선한칭지기교회)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시 113:5-9
- 1월 13일 (수)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야” 시 23:1-6
- 1월 14일 (목)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메카디쉬켄” 출 31:12-13
- 1월 15일 (금)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닛시” 출 17:8-16



이상훈 교수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LA (미성대학교) 총장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겸임교수
MiCA (Missional Church Alliance) 대표 디렉터



MiCA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훈 교수님과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으로 MiCA의 취지와 목적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MiCA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주로 교수 사역을 해 왔고 2년 전부터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미성대)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 모교인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와 스텝으로 오래 있었고 이후 몇몇 한인 신학교에서 강의와 사역도 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복미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갱신과 새로운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연구와 저술, 강의와 집회 등을 해 왔는데 오늘날 '선교적교회 운동'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MiCA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MiCA는 어떻게 태동하였고 또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MiCA는 Missional Church Alliance의 약자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은 교회들, 더 구체적으로는 목회자, 성도, 교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벌써 6~7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기 위해 만난 느슨한 모임이었어요.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러다 이 모임이 지속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 관계도 깊어졌고 동시에 성경적 교회에 대한 소명과 사역이 구체화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열망 속에서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단체를 세우자는 뜻을 모아 2년 전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주에 있는 교회들이 신년 연합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이 더 본격화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본 새벽예배의 의미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처음 신년 연합 새벽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든 것도 사실입니다. 각 교회들의 상황이 다르고 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뜻이 너무 쉽게 모였습니다. 목사님들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일을 환영해 주었어요. 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는 일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 주신 것이죠. 거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역을 준비하면서 실무진들이 너무 열심히 섬겨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시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는 배움이고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연합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대하는 일이었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이 은혜받고 위로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며 한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국가와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일 자체가 감격입니다. 바라는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때,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MiCA는 이 기간을 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함께해 오셨는지요?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상황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별로 교회가 취할 행동들을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위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나아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역을 찾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을 돌보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일들,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서로 격려 가운데 할 수 있었지요. 그만큼 자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예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진 않지만,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MiCA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MiCA는 선교적 정신을 가진 교회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는 단체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그 연결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 편에서는 정신을 공유하고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연합 사역이 이뤄지고, 다른 한 편에서는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연구 사역이 병행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이 지금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민 교회에서는 그런 단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MiCA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함께 협력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에 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은 만큼 더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과 손길을 느끼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격려와 위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명애 집중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함께 애드레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적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issional Church Alliance

현장스케치

MiCA 연합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 색다른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 귀하네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특새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MiCA 모든 교회 성도님들 화이팅이에요~

☺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와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니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매일 새벽마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날을 시작합니다. 2021년 365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아들교회 영성 댓글

열 교회가 연합된 MiCA 주최로 열리게 된 연합 신년 특새 소식과 주제를 통해 하나님은 팬데믹에 집중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더욱 더 집중해가는 자들을 찾고 계셨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정말 큰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연합된 열 교회의 MiCA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진정한 복음의 본질적 회복이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언제나 내 중심을 받으시며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예전엔 참으로 두렵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다. 보이는 것이 내게 어떠한지라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평생을 맡기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동부서림교회 흥한희 집사

2021년을 여는 신년 특새의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드리지만 확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즘엔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팬데믹이 길어지다 보니 중보기도하는 것조차도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는 to do list 중의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아닌 나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능동하신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말씀에 또 한 번 은혜 받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새해를 다시 시작해 보렵니다!

☑ 유니온교회 김성혜 집사

매일 아침 다른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시대, 만남이 끊어지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섬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치고 낙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듯이, 이미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가지 이름으로 찾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필요일부터 ‘연합새벽기도회’가 열린 덕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 목사님들 덕분에 하같이 만났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하나님을 매일 아침 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보니 말씀이 참으로 달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기도의 시간은 회복으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 연합새벽기도회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경험하게 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평강과 치료의 하나님, 목자되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동양선교회 김동희 집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갈의 삶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지라도, 그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같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의 위로와 힘을 얻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초월적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매일의 불안정한 삶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인격적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상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예비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제바오트’,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며 골리앗의 세상을 살아가며, 속 마ళ్ 듯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짧은 말씀의 시간이지만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 선한창기교회 윤성희 권사

저는 이번 MiCA 특새를 통해 세 가지 면에서 귀한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공격 예배들이 있었지만 이번 특새를 통해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코로나 안해 막혀 있던 영적 갈급함에서 해결이 된 점입니다.

매일마다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저 자신에게 한국과 미국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번 특새가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씨드교회 김재필 장로

2021년 새해를 특별 연합 새벽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었던 2020년으로 인해 그동안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의 역경이 2021년 연합 새벽기도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신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연합 새벽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김우준 목사

새해를 맞이하며, 늘 교회에서 드렸던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하며 지난 주일에 drive thru 특새 책자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워가며 부부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설교말씀을 기록하고, 기도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아내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제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와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번 특새가 우리 부부에게는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빛으시는 복된 시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랑의빛선교회 신도

각각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같은 도시의 삶을 공유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MiCA에 속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 말씀을 매일 들으며,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시기 중에 연합 예배를 통해 온 세상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의 성품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깊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 LA온누리교회 김성훈 목사